

복구, 지역 최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시행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촉진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 지원
내달 4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광주 복구가 광주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광주 복구는 오는 3월4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복구' 조성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해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 도입됐다.

복구는 이 사업을 통해 남성의 육아 부

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으며, 2025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중인 복구 거주 남성 노동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복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며, 대상 아동 또한 복구 주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육아휴직 당사자 혹은 배우자가 할 수 있으며,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익월 20일 이내에 개인 계좌로 3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2월분은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현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예산(총 5400만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복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복구 청년미래정책관으로 하면 된다.

문인 복구정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복구는 24개월 이하 영유아와 함께 병원 방문 시 콜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 18일 빛고을콜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



은 복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동구 '추억의 총장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수상
9년 연속 선정 쾌거

광주 동구는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축제인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기념관 내 피스앤피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에서 축제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동구는 '9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고, 총장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축제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인·외국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축제 콘텐츠를 선별해 지역 축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후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1데이-1박이벤트를 통한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 제공 △시민이 만드는 시민 기획형 프로그램 다양화 △시민과 관람객 참여로 만드는 프로그램 운영 △ESG 친환경 및 스마트 기술과 연계한 똑똑한 축제 등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9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면서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콘텐츠를 보강해 더욱 풍성한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는 오는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총장로 일원에서 열린다.

민현기 기자

'첨단둘레길 조성 시민추진단' 발대
광산구, 도심 속 명품길 조성

산책, 휴식 명소인 광주 광산구 '첨단둘레길'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길로 가꿀 시민추진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광산구는 26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첨단둘레길 조성 시민추진단(시민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첨단둘레길을 광주 대표 도심 속 명품길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생각과 역량을 모으는 기구다. 추진단으로는 지난 1~2월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 24명이 참여한다.

첨단둘레길 조성 사업은 첨단1동 둘레길(13.2km), 첨단2동 둘레길(11.5km), 첨단지구대상공원(1.7km) 등 세 곳을 대상으로 한다. 광산구는 첨단둘레길의 특성을 살린 상징물을 발굴하고, 다양한 볼거리 등을 설치해 걷기 좋은 명품길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첨단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시민추진단의 운영 및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추진단은 첨단둘레길 조성 사업 성공을 위해 △기획·자문 △현장 점검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김상철 기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 나서
광산구, 15억원으로 예산 확대

광주 광산구가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한다.

광산구는 26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유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편성·집행 등 예산 모든 과정에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공유회에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는 올해 '상생·협력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선진형 모델 구축'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실화에 힘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2억원(15%)을 늘려 15억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 또한 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고려해 청소년참여형 사업을 신설했다.

이어 청년참여형(1억원) 사업은 예산 규모를 확대해 청년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구정참여형 사업은 '주민참여형(4억5000만원)' 사업으로 통합해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청년, 청소년 등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 과정을 구성, 현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참여예산 전문가를 통해 사업 발굴, 사업 구체화 등 논의 과정을 돕는다.

광산구는 참여예산 사업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점검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는 오는 3~5월까지 진행하며,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8기 광산구의 지향점은 시민을 구정의 주인으로 세워 자치분권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의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남구 상반기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이 오는 3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방식을 통해 차례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상반기 통일열차 효천역 출발 사진.

광주 남구 제공

남구, 상반기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 나서

4월 10일 효천역-철원행 열차
5월 22일 효천역-파주행 열차

광주 남구가 올 봄 통일열차에 몸을 실을 탑승객 모집에 나선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상반기 통일열차 탑승객 모집이 오는 3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방식을 통해 차례로 진행된다.

상반기 통일열차는 오는 4월10일과 5월22일 효천역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로 향한다.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3월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탑승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 기간 2인 1조로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철원행 100명, 파주행 72명으로 총 172명이다.

현장 신청 탑승객 선정 결과는 3월18일 오후 3시 남구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발표되며, 같은 날 오후 6시 개별 문자로도 통보된다.

서구,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미선발자 취업 지원

1차 미니 취업박람회 개최
3개 기업, 50여명 참여

광주 서구는 지난 25일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에서 2025년 상반기 구직자를 대상으로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라마다 호텔, ㈜비에스코퍼레이션, ㈜다후 등 구인업체 3곳과 구직자 56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면접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취업박람회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선발에서 제외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를 연결해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구는 지난해 취업박람회를 5차례 개최해 구직자 43명이 37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선발에서 제외돼 상심했을

온라인 신청은 3월2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남구 주민과 관내 연고자이며, 접수 사이트는 남구 누리집을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철원행 150명, 파주행 108명이다.

남구는 주민들에게 통일열차 탑승 기회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 탑승객 1인당 3만원을 지원한다.

철원행 탑승객은 열차 운임, 식비, 현장 견학비 포함 9만원, 파주행 탑승객은 8만원에 통일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명 기자

주민들이 이번 미니 취업박람회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한다"며 "특히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취업 교육을 제공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현재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알선과 각종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해 구청 1층 일자리센터,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일자리센터 차평, 동 행정복지센터 6곳을 운영하는 등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